

晉州上村里出土 無文土器 新例

沈 奉 謹

Sim, Bongkeun

東亞大學教 考古美術史學科 教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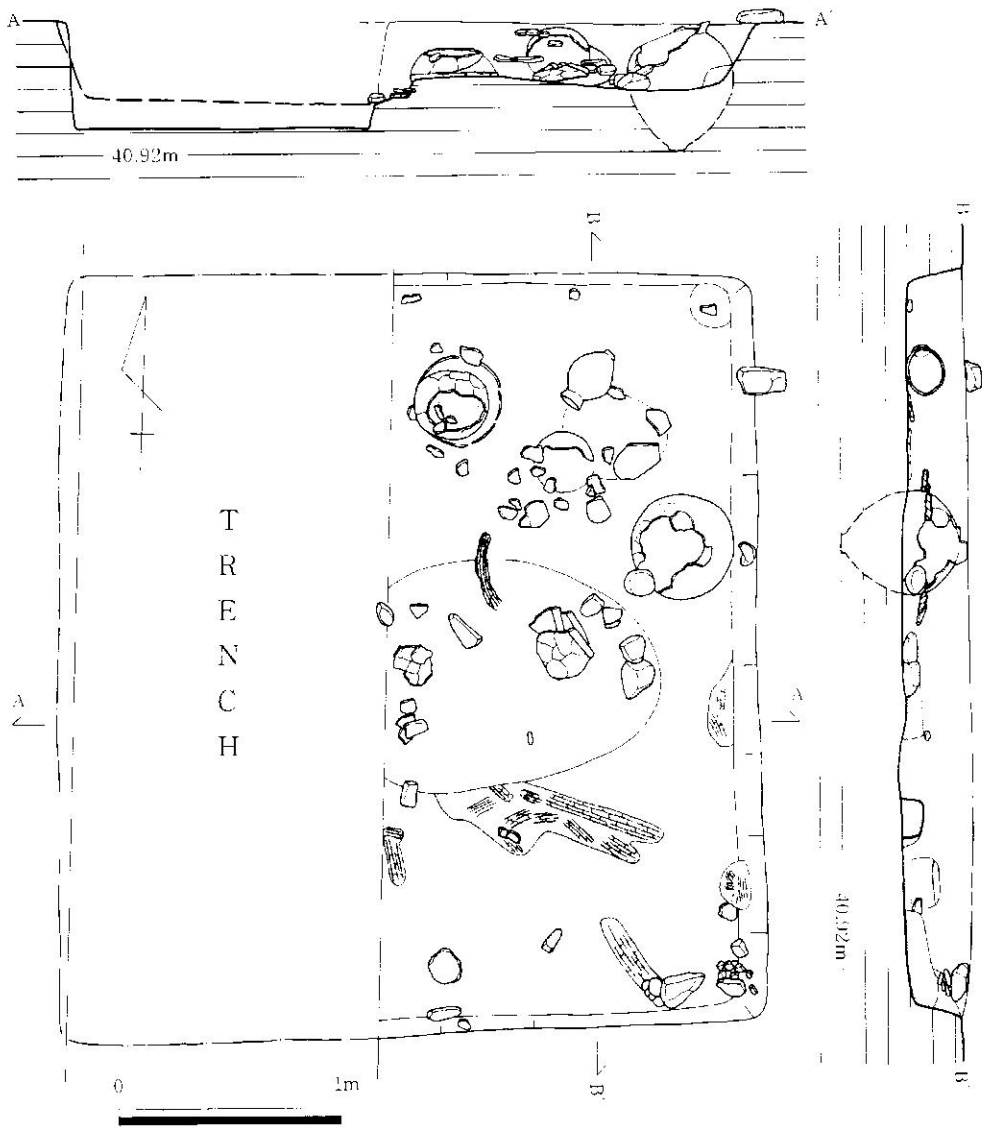
1. 머리말

동아대학교 박물관에서는 지난 1998년 1월 4일부터 같은해 2월 3일까지 약 1개월간에 걸쳐 晉州 南江댐 水沒地區에 해당하는 慶南 晉州市 大坪面 上村里 마을주변 耕作地에 대한 試掘調査를 실시하였다. 그 過程에서 上村里 564-1번지의 耕作地 地表下 1.2m정도 깊이에서 竪穴住居址 어깨선부분과 內部에 있던 土器片을 一部 確認하고 곧장 收拾調査를 실시하였다. 調査結果 住居址는 平面 方形에 가까운 竪穴式이었고, 內部에서는 大小形의 無文土器 4점과 磨製石斧 1점이 出土되었다. 그 가운데 無文土器 4점은 特徵이 우리나라 南部地方 靑銅器時代 土器로서는 비교적 이른 時期로 編年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라는 것이 주목되어 이번에 紹介하여 關係研究者들에게 資料로서 提供코자 하는 것이다.

2. 遺構와 出土遺物

가. 遺構(圖面1, 圖版1·2)

遺構가 位置한 上村里 마을주변 耕作地는 調査當時 대부분 밭작물을 재배하고 있었고, 南江 上流에서 흘러내린 砂礫이 堆積되어 形成된 沖積臺地이다. 이 평평한 충적대지는 주변에 흐르는 강물과 함께 人類가 생활하기에 알맞은 自然環境을 具備하고 있어서 舊石器, 新石器, 靑銅器時代를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連續해서 생활터전으로 활용되고 있다. 물론 長期間을 거치면서 洪水나 地震과 같은 自然災害와 住居址나 耕作地의 築造過程에서 생긴 重複으로 臺地의 堆積層이 毀損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最近 球根作物인 우윅이나 山芋를 栽培하고 收穫하는 過程에서 重機를 動員하여 堆積層 깊은 부분까지 파헤쳐지면



圖面1. 晉州上村里 第2 TRENCH内 住居址 實測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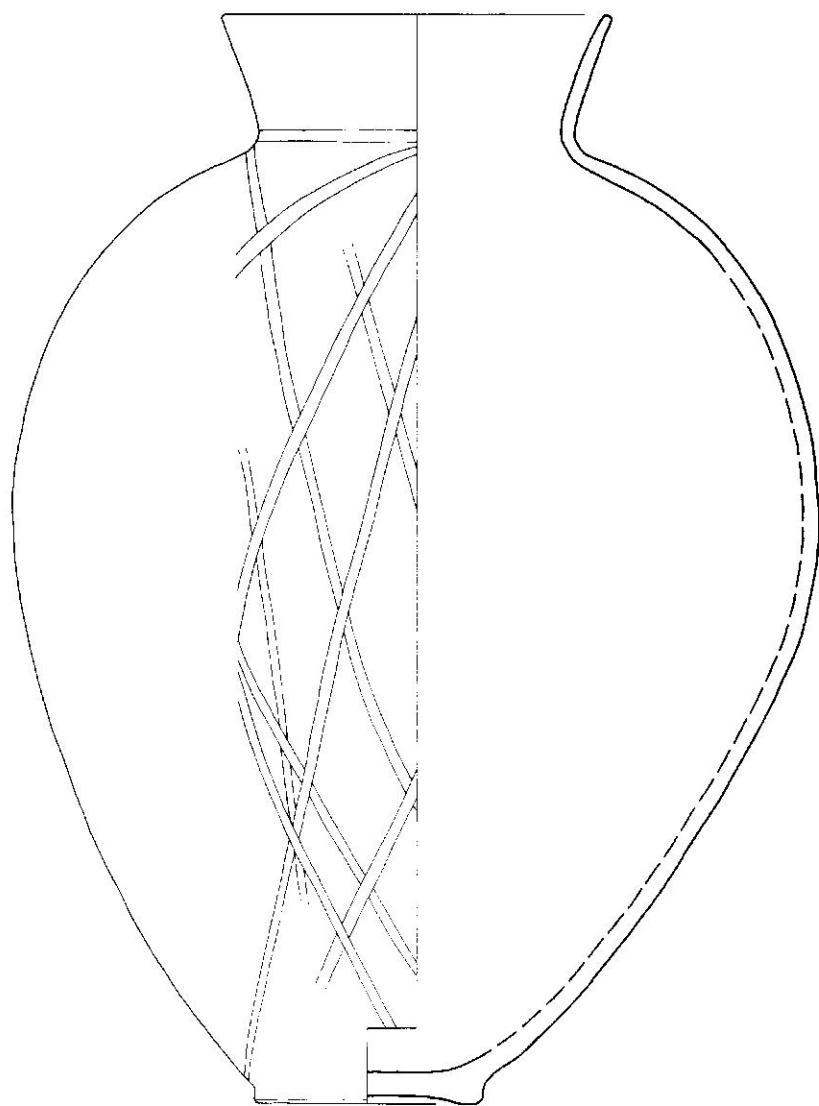
서 그 아래에 있던 대부분의 遺構들이 破壞되는 受難을 겪고 말았다. 이번에 確認된 遺構는 좁은 面積이지만 다행히도 重機 被害를 덜 입은 지역이었으므로 그 形態把握과 遺物 收拾이 可能하게 된 것이다.

이곳 住居址가 位置한 곳의 윗층에는 비교적 堆積層이 良好하게 殘存하고 있었는데 당시 耕作層인 暗褐色腐飾土層을 始作으로 그 아래 黑褐色腐飾土層, 灰褐色腐飾土層이 각각 약 30cm 두께로 水平하게 堆積되고 그 아래에는 다시 茶褐色砂質土層, 灰褐色과 黃褐色이 混合된 砂質土層이 각각 위치하고 있었다. 住居址의 어깨선은 이 茶褐色砂質土層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여 그 아래층인 灰褐色과 黃褐色砂質土가 混合된 土層을 床面으로 삼고 있었다.

住居址 어깨선의 발견은 南-北으로 幅 1.5m 규모의 트렌치를 3m정도 깊이로 設置하고 그 壁面을 整理하는 過程에서 양쪽으로 나란하게 나타났고, 그 內部에는 검붉은 腐飾土와 土器片이 混在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트렌치 設置作業 중에 住居址의 床面 一部分이 破壞된 셈이다. 住居址의 平面은 方形에 가까우나 南-北軸이 약간 길어 보인다. 서쪽 長壁의 어깨선 부분만 겨우 殘存할 정도로 서쪽 床面은 트렌치에 걸려 모두 毀損되고 동쪽부분만 남은 狀態이다. 어깨선에서 약 20cm정도 깊이에 있는 床面은 特殊한 裝置없이 砂質土層을 그대로 평평하게 다진 狀態이고 中央에 橢圓形의 爐址로 추정되는 얇게 깔린 燒土層이 있는데 그저 床面을 약간 오목하게 파고 그 속에 불을 피운 形態이다. 調査當時의 어깨선 높이는 原狀이 아니고 위의 腐飾土層이 이미 毀損시킨 듯 하였고 床面에서는 기둥자리나 礎石과 같은 痕迹은 確認되지 않았다. 遺物은 殘存하는 북쪽 床面に 大小 壺形土器가 集中하는 現狀이었는데 大形의 경우 床面に 底部가 一部分 박힌 狀態였고, 나머지 小形은 床面 위에 반듯하게 놓여진 것이 뒷날 住居址 廢棄와 함께 顛覆되어 깨어진 狀態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앙의 燒土部分에도 二重口緣을 가진 甕形土器가 破損된 채 흩어져 있었고, 그 남쪽에는 지붕의 架構材로 使用되었던 것으로 推定되는 등근 木材片이 炭化된 채 곳곳에 흩어져 있었다. 石斧와 石材들도 남쪽과 中央의 燒土部分을 중심으로 散發적으로 흩어진 채 確認되었다. 따라서 折半정도가 破損되어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住居址는 內部에 遺物을 그대로 남겨둔 채 火災와 같은 피치못할 事情으로 家族들만 避身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住居址의 크기는 남-북 33.4m, 동-서 32m이다.

나. 出土遺物(圖面2·3, 圖版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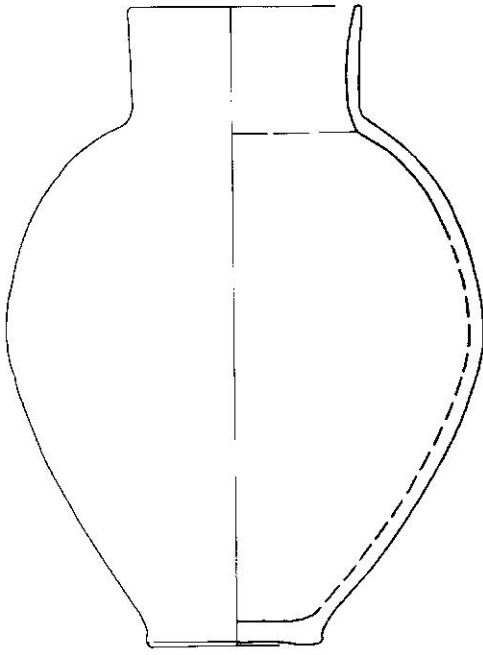
먼저 大形의 壺形土器(原色1·圖面2)이다. 黑褐色을 띠며 약간 外反하면서 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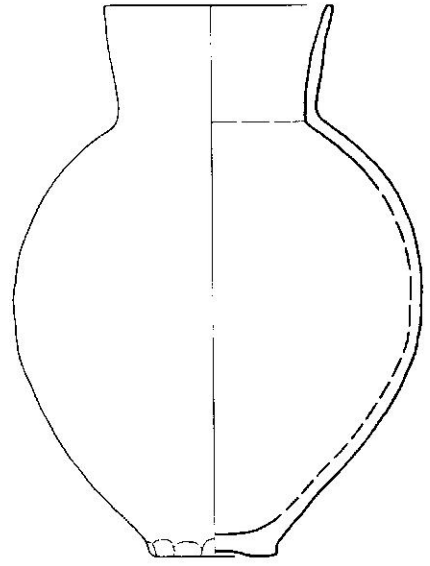
大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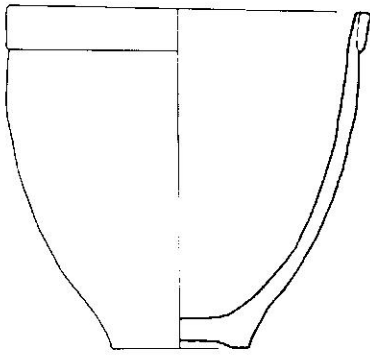
圖面2. 出土遺物 實測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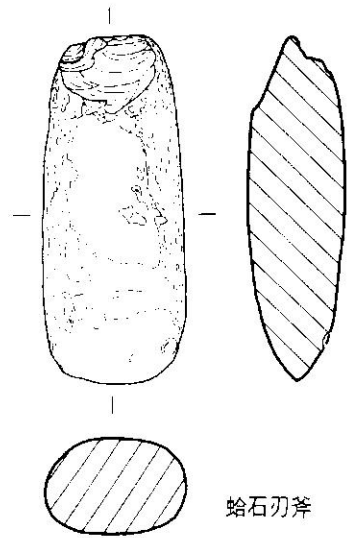
中頸壺 1



中頸壺 2



二重口緣甕



蛤石刃斧



圖面3. 出土遺物 實測圖

立하는 口緣部에 頸部는 짧다. 肩部는 짝 벌어지고 胴部는 最大徑이 上位에 있다. 底部는 좁은 平底이고 外部 바닥에 闊葉樹 잎을 사용한 받침자국이 있으며 들림 바닥의 햇무리 굽 형태를 하고 있다. 胎土는 無文土器 特有的 굵은 砂粒性 雜物이 混在하고 燒成은 良好한 편이다. 成形은 粘土帶로 卷上하고 内外面에 磨研자국과 貝殼條痕의 調整痕跡이 있다. 注目되는 것은 土器表面에 가죽이나 덩굴과 같은 줄을 이용하여 斜格子狀으로 엮어 씌웠던 補強網 痕跡을 남기고 있는 점이다. 마치 濟州道의 물 허벅을 聯想케하는 것으로서 大田에서 購入한 것으로 傳하는 國立中央博物館 所藏 防牌形 青銅器 裏面に 새겨진 農耕文 가운데 키를 들고 일하는 사람 옆에 놓인 格子文을 가진 容器와 類似함을 엿볼 수 있다.¹⁾ 高 57.2cm 口徑 119.9cm 底徑 11.8cm 胴部最大徑 42.7cm이다.

다음은 中形の 壺形土器(原色2·圖面3) 2점이다. 약간 大小에 差異는 있으나 特徵은 거의 同一하다. 모두 直立하는 口緣部에 頸部가 약간 길고 胴部 最大徑은 역시 上位에 있다. 나머지 製作手法이나 色調는 前記한 大壺와 같지만 外면에 補強網을 씌운 痕跡은 없다. 中頸壺 1은 高 33.9cm 口徑 12.1cm 底徑 8.9cm이고 中頸壺 2는 高 29.2cm 口徑 12cm 底徑 6.1cm이다.

마지막 甕形土器(原色3·圖面3)이다. 床面中央 燒土層에서 납작하게 破損되어 出土된 것을 復元하였다. 直立하는 口緣部 外側에 斷面 長方形의 粘土帶가 添加되고 胴部는 둥글며 좁은 底部는 역시 들림 바닥의 햇무리 굽 형태를 하고 있다. 成形手法이나 胎土, 燒成은 前者들과 同一하지만 器面 調整時 생긴 貝殼條痕文이 군데군데 나타나고 있다. 高 18.2cm 口徑 18.7cm 底徑 7.2cm 이다.

그밖에 남쪽 床面에서 砂巖製 蛤刃石斧가 出土되었다. 長橢圓形의 몸통에 斷面은 圓形에 가까우며 머리부분이 약간 破損되었다. 길이 13.4cm 폭 3.8cm이다.

3. 考察

우리나라 青銅器時代 土器는 東北지방의 孔列土器와 丹塗磨研土器²⁾, 西北지방의 팽이형토기³⁾, 北部지방의 美松里型土器⁴⁾로 크게 區分되고 있다. 南部지

-
- 1) 金元龍, 『韓國美術全集』 原始美術 I, 同和出版社, 1973
 - 2) 黃基德, 「茂山虎谷洞遺蹟發掘報告」, 『考古民俗論文集』 6, 1975
社會科學院考古學研究所, 『會寧五洞原始遺蹟發掘報告』 遺蹟發掘報告 第7集, 1960
 - 3) 後藤直, 「西朝鮮의 無文土器について」, 『考古學研究』 17-4, 1971
韓永熙, 「角形土器考」, 『韓國考古學報』 14·15, 1983
 - 4) 金用珩, 「美松里洞窟遺蹟發掘報告」, 『各地遺蹟發掘報告』 考古學資料集 第3集, 1963

방의 경우는 이들 無文土器의 特徵이 混合또는 獨白的으로 나타나는 傾向이다.¹⁰⁾ 그 중에서도 東北지방 系列이라고 생각되는 孔列土器와 丹塗磨研土器가 南部지방에서는 主流를 이루다시피 하고 있다. 그리고 初期鐵器時代가 되면 韓國式銅劍類와 함께 美松里型土器 系統의 黑褐色長頸壺와 斷面 圓形의 粘土帶土器가 나타나고 있다.¹¹⁾ 특히 美松里型土器 系統의 南部지방 出現은 北部지방에서 鐵器와 함께 移動하였음을 示唆케 하고 있다. 물론 그것은 自然的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당시 東北아시아 지역의 歷史的인 事實과도 깊은 關係가 있었을 것이 豫測된다.¹²⁾

그런데 이 遺蹟에서 注目해야 할 것은 平面 方形을 가진 竪穴住居址와 여기에서 出土된 土器이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住居址이다. 現在까지 南江甌 水沒地區의 調査에서 確認된 靑銅器時代 住居址는 크게 平面 長方形 또는 方形과 圓形의 두가지로 區分할 수 있다.¹³⁾ 그 가운데 長方形의 것은 小數에 不過하지만 人形으로서 床面中央에 板石으로 組立한 箱子形爐址를 가지며, 기둥부분에는 自然石을 利用한 礎石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圓形의 것은 이곳 住居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形態로서 床面中央에 橢圓形 竅을 파서 作業孔으로 삼고 그 양쪽으로 柱穴을 配置하는 소위 松菊里型이며¹⁴⁾ 간혹 말각형을 띠는 것도 있다. 前者에서는 各種 磨製石器와 함께 孔列土器와 새김머뭇문의 甕形土器, 丹塗磨研의 壺形土器가 주로 出土되고, 後者에서는 無文의 甕形土器와 丹塗磨研土器가 各種 磨製石器와 함께 出土되고 있다. 이런 特徵으로 보아서 長方形 住居址가 圓形 住居址 보다는 先行하는 形態라는 것을 알 수 있다.¹⁵⁾ 따라서 上村里 住居址의 경우는 우선 形態上 長方形과 그 系統을 같이한다는 推測은 可能하지만 箱子形爐址와 丹塗磨研土器나 새김머뭇문토기가 發見되고 있지 않은 差異점이 있어서 同一時期에 사용되었다고 고집할 수는 없다. 다만 分명한 事實은 圓形의 것보다는 先行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¹⁰⁾ 西谷正, 「美松里洞窟出土の無文土器-西部朝鮮無文土器編年のため(1)」, 『史淵』115, 1978
¹¹⁾ 藤口健二, 「朝鮮無文土器と銅生土器」『彌生文化の研究』3, 彌生土器1, 雄山閣, 1986

¹²⁾ 韓相, 「粘土帶土器의 文化性格의 一考察」, 1981

¹³⁾ 金澤基, 「東夷와 洋夷·西戎에 對하여」, 『東方學志』第1輯, 東方學研究所, 1954

¹⁴⁾ 이번이 조사된 남강수물지구유적 가운데 中村里, 上村里, 天坪里, 貫谷洞 일대에서 확인된 청동기시대 주거지들은 크게 2종류로 구분된다.

¹⁵⁾ 國立中央博物館, 『松菊里 I・IV』, 1978~1980

¹⁶⁾ 남강담수물지구 유적에서 확인된 청동기시대 수혈주거지는 장방형→방형→원형이라는 편년적 시열이 인정되고 있다.

다음 土器이다. 여기에서 出土된 土器에서 注目할 것은 住居址 廢棄時 火災의 可能性은 充分하지만, 土器 表面이 모두 黑褐色을 띠고 磨研된 것이며 底部는 들림 바닥의 햇무리 굽을 가진다는 것이 共通點이다. 그리고 大壺의 경우는 바깥에 格子文狀의 組織物인 補強網을 씌웠던 痕迹이 있고 甕形土器는 斷面 長方形의 二重口緣을 가진 점이다. 이런 特徵의 土器는 靑銅器時代 孔列土器나 팽이형토기, 美松里型土器 가운데 美松里型土器와 많이 닮고 있는 것으로 推定된다. 즉 黑褐色을 띠고, 中頸의 平底壺, 長方形 粘土帶를 가진 二重口緣의 甕形土器가 세트관계를 이루고 있는 점이다. 물론 팽이형토기 系統이라고 생각하는 可樂式土器도 甕과 壺가 세트관계를 이루고, 甕形土器는 斷面 長方形의 二重口緣을 가진 特徵은 相互의 關聯性이 認定될 수 있다.¹¹⁾ 그러나 表面이 赤褐色을 띠고 磨研하지 않았으며, 들림 바닥의 햇무리 굽이 아닌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形態의 土器들은 中國 東北지방의 古朝鮮式銅劍이 出土되는 樓上¹²⁾, 崗上무덤¹³⁾이나 雙陀子무덤¹⁴⁾, 그리고 우리나라 寧邊 細竹里遺蹟¹⁵⁾ 等地에서 出土되는 無文土器들과 많이 닮은 느낌이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土器는 東北지방에서 古朝鮮式銅劍 文化와 함께 이곳으로 南下했을 可能性이 많아 보인다. 그것은 東北아시아지역의 政治的인 狀況과 맞물려서 혹은 古朝鮮族의 移動과도 關係했을 可能性도 있다. 例를들면 이것과는 編年上 直接的으로 連結될 수는 없지만 다음 단계의 初期鐵器時代 韓國式銅劍과 함께 나타나는 黑色磨研 長頸壺나 粘土帶口緣土器는 特徵上 이 土器들과 같은 系統의 것으로 推測된다.¹⁶⁾ 다만 이 경우 의문이 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南部지방에서는 古朝鮮式銅劍과 함께 丹塗磨研土器가 出土되는 例가 대부분이고 黑褐色磨研土器를 同伴하는 例가 없다는 現實이다. 물론 여기서도 銅劍이 直接 出土되지 않았다. 그러나 前記한 것과처럼 土器의 特徵이 中國 東北지방에서 銅劍을 同伴하는 遺蹟에서 出土되는 것과 닮았다는 사실만을 勘案한다면 南部지방에서는 異質的인 것이라고 解釋할 수 있다.¹⁷⁾ 그리고 大壺 表面에 씌워진 補強網과 防牌形

11) 金廷鶴, 「光州可樂里先史住居址 發掘報告」 『古文化』2, 1963

12) 朝・中台同考古發掘隊, 『崗上・樓上』 東北アジア考古研究會 譯, 六興出版, 1988

13) 註12와 同.

14) 조·중합동고고학발굴대, 『중국동북지방의 유적발굴보고』, 1966

15) 金政文·金永祐, 「細竹里遺蹟中間發掘報告(1),(2)」 『考古民俗』 1961, 2/3, 19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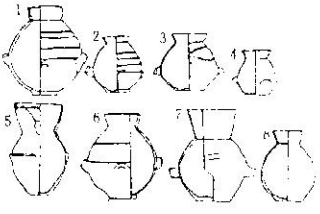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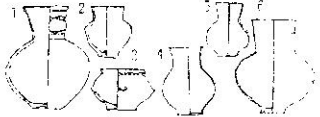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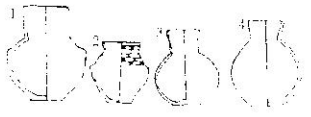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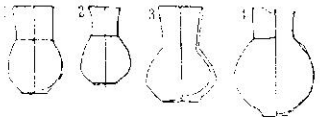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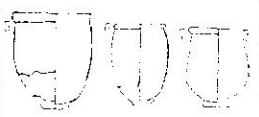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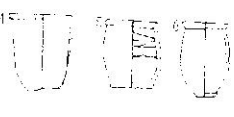




16) 沈奉龍 外, 「韓國 靑銅劍 系譜와 그 同伴遺物」 『韓國上古史學報』 第10輯, 1992

17) 沈陽故宮博物館 外, 「沈陽鄭家窪子的兩座靑銅器時代墓葬」 『考古學報』 75/1, 1975

銅器의 農耕文에 나타나는 容器와 닮은 점은 偶然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 새로운 資料增加에 期待하겠지만 이 資料를 통해서 靑銅器時代 우리나라 南部지방의 無文土器들이 다양한 文化系譜를 가지고 傳播되고 製作되었다는 짐작할 수 있게 하여 이를 理解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 分明하다. 마지막으로 이 土器의 使用時期는 遺構의 形態에서 松菊里型 住居址보다는 先行할 것이라는 점과 中頸壺와 二重口緣 甕形土器의 變遷過程을 參考하면(圖面4) 일단 古朝鮮式銅劍의 II段階에 해당할 可能性이 많다고 생각하여 紀元前 6世紀頃이라고 推定해 본다.

28) 沈奉謙, 『韓國에서 본 日本銅生文化의 展開』, 學研文化社, 1989

圖面4. 우리나라 靑銅劍과 無文土器 變遷圖 (沈奉謹外, 『韓國靑銅劍 系譜와 그 同伴 遺物』, 1992에서)

		壺形土器	甗形土器	出土地名
古朝鮮 銅劍期	第Ⅰ期			12. 雙龍山(忠清南道) 14. 南陽(江原道) 不詳 16. 元山(江原道) 18. 龍川(江原道) 18. 永春(忠清南道) 19. 小島(江原道) 19. 小島(江原道)
	第Ⅱ期			12. 永春(忠清南道) 15. 龍川(江原道) 1. 龍川(江原道) 7. 忠清南道 8. 永春(忠清南道)
	第Ⅲ期			12. 龍川(江原道) 3. 龍川(江原道) 1. 龍川(江原道) 5. 龍川(江原道)
韓國式 銅劍期	第Ⅰ期			1. 龍川(江原道) 2. 龍川(江原道) 3. 龍川(江原道) 4. 龍川(江原道)
	第Ⅱ期			12. 龍川(江原道) 3. 龍川(江原道) 3. 龍川(江原道) 4. 龍川(江原道) 6. 龍川(江原道)
	第Ⅲ期			1. 龍川(江原道) 2. 龍川(江原道) 3. 龍川(江原道) 4. 龍川(江原道) 1. 龍川(江原道)
	第Ⅳ期			1. 龍川(江原道) 2. 龍川(江原道)



全景(試掘前)



住居址 露出狀態

圖版1. 晉州上村里無文土器出土 遺蹟



床面全景



細部露出狀態

圖版2. 晉州上村里無文土器出土 遺構



圖版3 晉州上村里出土無文土器 大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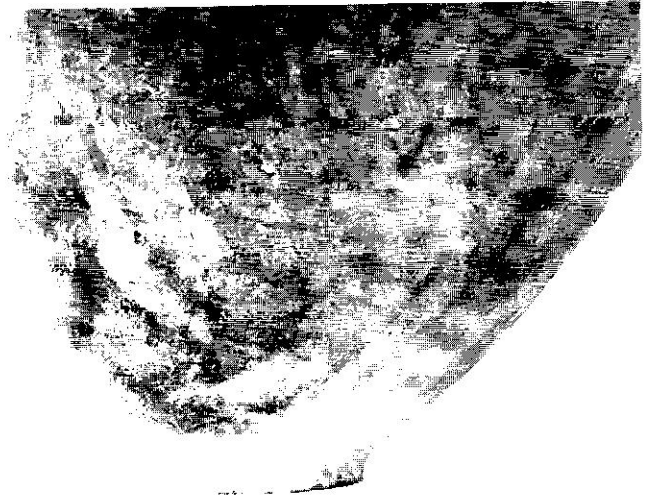


肩部補強網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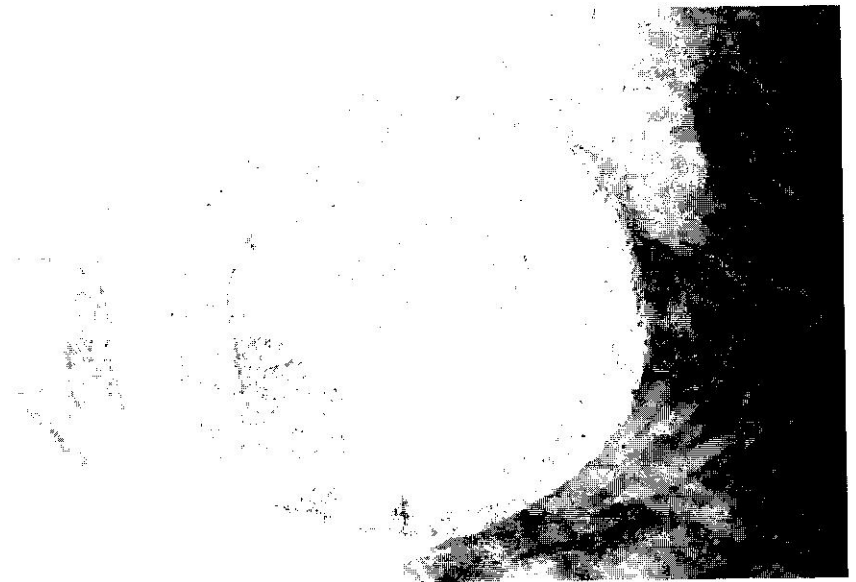


胴部近接

圖版4 晉州七村里出土無文土器 大壺



底部



底部仰視

圖版5. 晉州上村里出土無文土器 大壺



全面



頸部近接

圖版c. 晉州上村里出土無文土器 中頸壺1



底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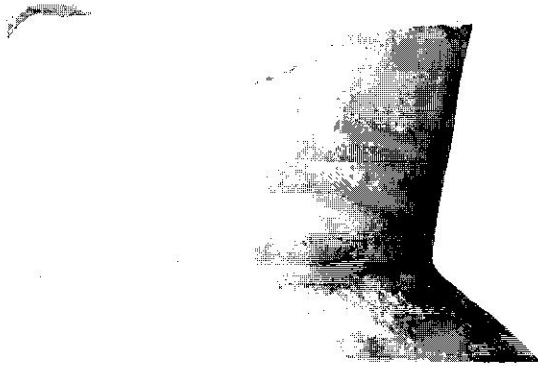


底部바닥

圖版7. 晉州上村里出土無文土器 中頸壺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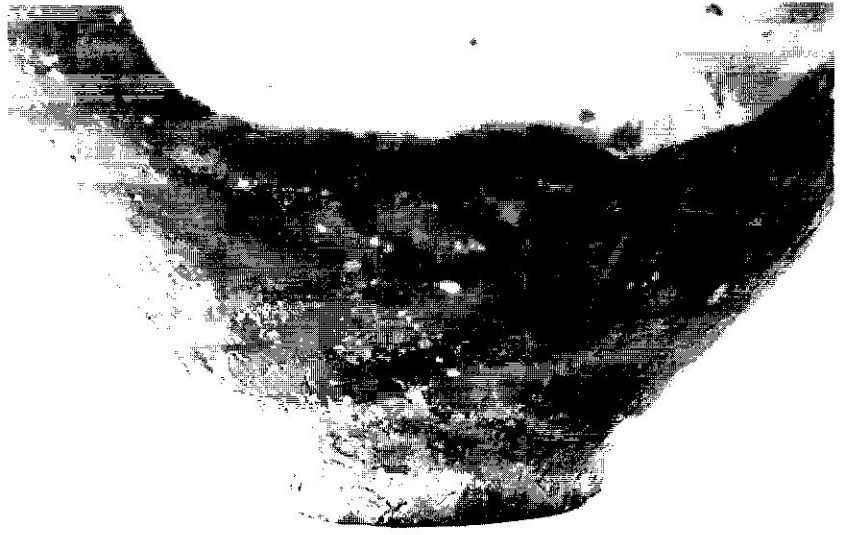


全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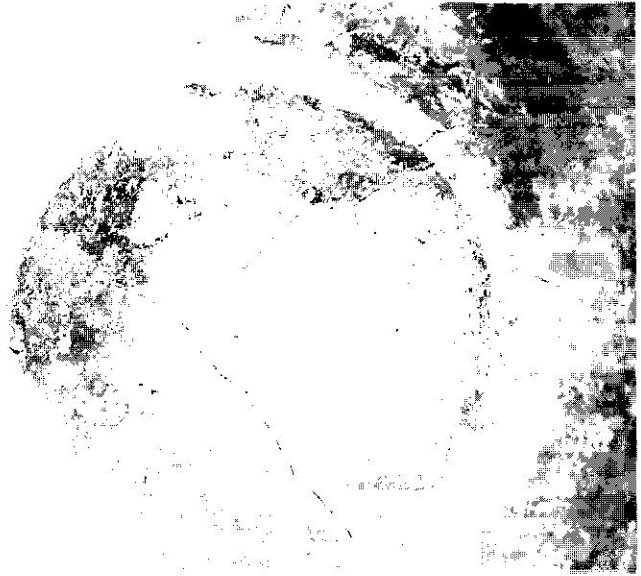


頸部近接

圖版8. 晉州上村里出土無文土器 中頸壺?



底部



底部바닥

圖版9. 晉州上村里出土無文土器 中頸壺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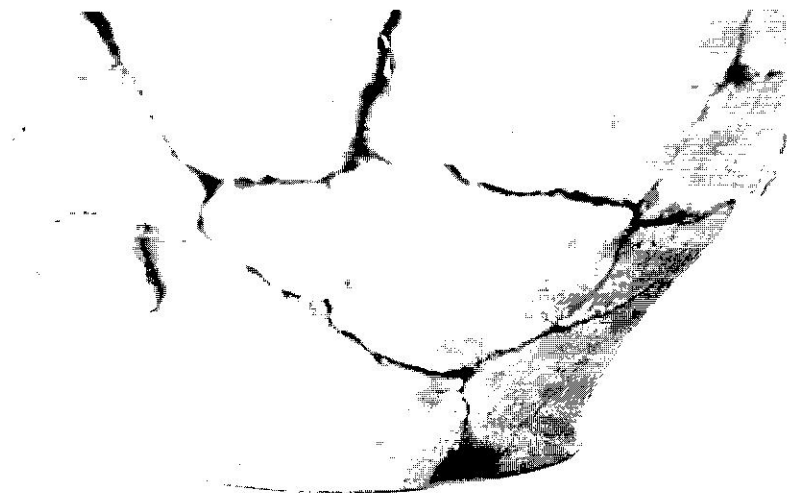


全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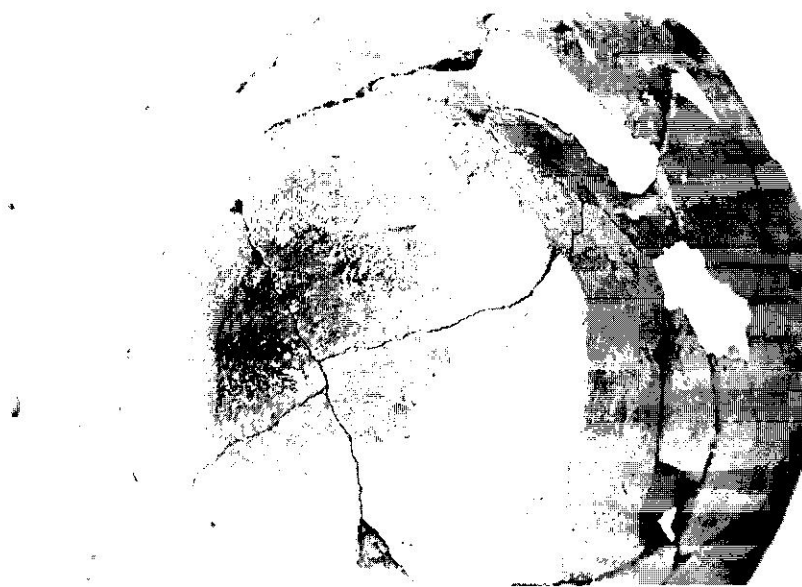


二重口緣近接

圖版10. 晉州上村里出土無文土器 甕



底部



底部바닥

圖版11. 晉州上村出土土里無文土器 甕



圖版12. 晉州上村里出土 瑤刃石斧